잘 숙성된 미련함의 증상들

(잠언 27:1~27)

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2.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3.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4.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5.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잘 숙성된 미련함의 증상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잘 숙성된 미련함의 증상들'
어제 미련함도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멸망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멸망을 얻게 하는 믿음은 바로 미련함입니다. 미련함 속에는 터무니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읽지 않은 20절에서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스올과 아바돈'은 아직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밝히 말씀하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선민들이 어렴풋이 생각하던 사후 세계이고 멸망당한 자들의 처소였습니다. 아바돈은 우리말로 하자면 '유명을 달리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올과 아바돈의 특징은 지구상의 75억 명의 인구를 다 삼킬지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조세계에서 어떤 것을 가질지라도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라고 굳이 눈을 통해서 만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미련함 다시 말해 터무니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채워서 기쁘고 만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련함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처구니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어처구니는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입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돌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터무니없음과 어처구니없음이 결합된 것이 미련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라고 연결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지옥임을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지옥에 가지 않았더라도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삶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믿음과 어처구니없음은 참으로 끈질기고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잡으실 손잡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돌리시며 창조적인 계획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미련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막대기를 들어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을지라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실 손잡이가 없다면 막대기를 드셔서 우리를 때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보았던 26장 3절에서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미련함입니다. 자녀가 세상 기준을 따라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또한 미련함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나의 삶도 자녀의 삶도 하나님이 잡으실 손잡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마음 공백은 결코 사업이나 자녀의 형통 등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때리십니다. 사업도 실패하게 하시고 자녀의 형통도 안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터무니없는 믿음의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자들은 더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사업하다 망했으면 이번에는 빚까지 얻어가며 다시 시도합니다. 아침 금식하며 사업 잘되기를 기도했다면 이

제는 사십일 금식기도라도 하려고 합니다. 미련함이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미련함은 숙성되기 시작합니다. 잘 숙성된 메주처럼 되어버립니다. 메주를 숙성하는 것은 곰팡이 균에 의한 발효입니다. 그런데 나쁜 균이 불어나면 부패하게 되고 좋은 균이 불어나면 발효되며 숙성됩니다. 미련함에는 나쁜 균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구에 넣은 곡식을 공이로 찧는 것처럼 미련함을 벗겨내려고 하시지만 끝내 버틴다면 미련함은 숙성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함이 숙성되면서 생기는 대표적 증상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비전입니다.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자랑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내일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곧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사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미련함이 숙성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심지어 지금은 아직 없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라 믿어지지만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만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며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게 붙잡은 미련한 믿음에 시간이라는 미생물이 결합하게 되면서 숙성이 일어납니다. 미련함이 견고하게 유지될 때에 시간이라는 곰팡이가 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비전입니다. '5년 뒤에는 이루리라, 10년 뒤에는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반면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릴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없음을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미뤄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조차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다는 것은 곧 교제가 이루어진

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동안에는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며,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으나 아브라함이 집중해야 될 대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했던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는 그 약속을 비전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는 했으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 위해 미래를 바라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항상 눈앞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지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비전을 가르쳐주실지라도 그것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담으면 미련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라도 우리는 그 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로 나를 만족하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고 전도활동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훈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어떤 기적일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곧 미련함이 생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던 선민들은 고작 삼일을 버티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보이는 것을 마음에 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함은 시간이라는 곰팡이에 의해 숙성되면 비전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증상은 자랑입니다.
2절을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스스로의 자랑을 칭찬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

다. 여기서 '타인이나 외인'은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칭찬한다면 그와 만난 적은 없을지라도 나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치활동으로 인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생겨납니다. 본문에서 '타인과 외인이 칭찬하게 하라'는 것은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절대로 칭찬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칭찬의 속성은 동질성입니다. 내가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진 미련한 자이고 내 옆에 사람도 미련한 자입니다. 돈 많이 벌면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미련함에서 나온 칭찬은 실상은 욕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미련한자들끼리 잔칫상을 벌이는 셈입니다. 이러한 칭찬을 듣고 기뻐하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앞서 보았던 20절에서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 할 때에 스올과 아바돈은 지옥의 삶이 펼쳐진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을 사는 자들이 서로를 칭찬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욕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옥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미련함의 첫 번째 증상이었던 비전과 두 번째 속성인 자랑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 나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들 간의 경쟁의식이 미련함을 숙성시키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칭찬을 추구하며 몸부림칩니다. 경쟁의식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자들에게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미련한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분노입니다.

3절을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가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을 세상의 가치로 채울 수 있다고 믿어서 추구합니다. 예로 돈을 들어봅니다. 돈이 있어야 만족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추구함에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거나 장애가 발생합니다. 혹은 어떤 시도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이럴 때에 분노가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서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자 안달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와 반대로 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모으려고 하고 배설물을 모으는데 방해받으면 분

노합니다. 이것이 미련함의 숙성 단계에서 피해망상의 곰팡이가 붙어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추구하는 자가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노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돈은 인간의 기쁨과 만족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다 그러합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가나 전문대학을 들어가나 그것은 나의 기쁨과 만족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집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간 것이 부럽고, 전문대학에 들어간 내 자녀를 창피하게 여겨서 구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피해망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잃든 자녀가 전문대학을 다니든 그것은 피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련함이 숙성되면 이것을 피해로 여깁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니 분노하게 됩니다. 이 분노가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나 돌보다도 무겁다고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투기입니다.
4절을 보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라고 하였습니다.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집착입니다. 미련함에 집착의 곰팡이가 달라붙으면 투기 즉 질투와 시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면 질투와 시기가 생겨납니다. 연인에 대해 내 마음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연인도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연인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는 소중합니다. 연인 자체가 결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은 내 이웃이 큰돈을 벌었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질투와 시기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본질적으로는 나의 기쁨과 만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돈이 내게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갔으니 질투와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집착이라는 곰팡이가 미련함을 숙성시키면 질투와 시기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미련함을 죽여야만 합니다.
미련함이 숙성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미련한 나를 죽여야만 합니다. 미련함에는 터무니없는 믿음의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슬프고 걱정이 된다면 그 이유도 믿음 때문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슬픔 걱정 염려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데, 정작 그렇게 되지 않자 슬픔과 걱정이 생겨납니다.
이 미련함을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얼른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해야

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이 지속되면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음이 끌어들이지 않게 됩니다.
드라큘라에게 십자가를 들이대면 소리치며 뒷걸음질 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드라큘라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들여놓지 않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마음에 들어오면 미련함이 생겨나고, 미련함이 지속되면 숙성되어 오늘 살펴본 증상들이 생겨납니다. 온갖 곰팡이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라는 말씀대로 삶은 지옥이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에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처구니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미련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실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인생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뿐입니다. 미련함이 숙성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미련함의 숙성 단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미련함이 근본적으로 퇴치되게 해주시고 미련함이 숙성되어 지옥이 연출되는 삶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